

# 이력서

이채윤 LEE CHAE-YUN | 직무: 프론트엔드

- 2000.08.11
- 010-8288-3644
- lycheey@naver.com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157 605동 701호



## 학력사항 EDUCATION

2019.03 – 2022.02	한양여자대학교 졸업	패션디자인과
2016.03 – 2019.02	행신고등학교 졸업	인문계

## 경력사항 WORK EXPERIENCE

2020.12 – 2023.02	풋락커 코리아	슈퍼바이저(Supervisor)	매장관리, 마케팅플랜기획, 고객응대
2019.02 – 2020.08	자연별곡	사원(파트타임어)	홀 관리 및 고객응대

## 업무스킬 SKILL

HTML5 / CSS3	시멘틱 마크업 원칙을 준수하며 웹접근성과 웹표준에 부합하는 크로스 브라우징 웹/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 구현.
JavaScript / jQuery	화면 동작 제어를 통한 동적인 홈페이지 구현, 간단한 구조의 프로그램 제작.
React	기본 문법 교육.
Photoshop, Illustrator	랜딩페이지, 배너, SNS 홍보용 이미지 등의 간단한 작업물 제작.

## 교육 및 연수 TRAINING

2023.05– 2023.11	UX/UI 웹디자인&웹퍼블리셔 실무자 양성과정 (더조은컴퓨터아트학원)
---------------------	---

## 외국어 및 자격사항 LANGUAGE & CERTIFICATE

2023.10	웹디자인기능사 필기
2023.06	2종보통운전면허

### 웹 퍼블리셔로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

안녕하세요, 첫발을 내딛는 웹 퍼블리셔 이채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보든 아름다운 구조와 미학적인 형태를 가진 것을 좋아했고 이끌려왔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초등학생 때,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레이아웃 에디터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구조와 방식으로 블로그를 꾸밀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나도 편하면서 보기에도 좋을지 고민하며 종일 구조를 바꿔가면서 블로그를 꾸뒀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지만 처음으로 홈페이지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 본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근무했던 회사에서 한국 온라인 샵을 런칭하게 되었는데, 직접 들어가 보니 비전공자인 제가 보기에도 엉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 근무자인 저에게 '온라인 홈페이지가 너무 어렵다. 쉽게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컴플레인이 유선, 대면 상관없이 여러 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온라인 샵 오픈 초기여서 아직 미완성 된 부분이 많으나 개선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대답 말고는 직접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제가 퍼블리싱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

### 저는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전문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으로 일하게 되면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데에 열정이 생기며, 최대한 많이 배우려 하고, 배울수록 적응 속도도 비례해서 빨라집니다. 이는 확실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배경지식과 경력 없이 입사했던 전 직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가치관은 새로운 기술 파악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기술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픈 욕심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둘째, 효율적이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회사에서 꼼꼼함이 필요한 업무는 항상 저에게 맡겼었습니다. 이 성격의 도움으로 코드를 짜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디서 오류가 나고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빨리 판단해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유연한 계획성입니다. 보통 기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스트레스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노션을 사용한 개인적인 공부 계획도 수시로 수정해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가진 근면 성실한 성품입니다. 이 점은 어느 사회생활에서도 좋게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서울에 4곳의 매장을 냈을 때, 'Player of the month'라는 이달의 직원을 선정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해당 매장의 이달의 직원으로 선정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총 4명 중 저 혼자 파타이어였습니다. 불과 주 16시간씩 3개월을 일했음에도 제게 신뢰를 가진 매니저님들께서 저를 추천해주셔서 이룰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